이건희 前 회장, 전격 경영복귀 배경 뭘까

"도요타 사태에 삼성 위기 느꼈다"

세계일류기업 무너지는 지금이 진짜위기
"10년내 삼성 대표 사업·제품 사라질 것"
급변하는 경제 환경 능동 대처위해 결정

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24일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 일선에 전격적으로 복귀한다고 선언했다. '삼성 특검'문제로 2008년 4월22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퇴진을 선언한 지 23개월,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단독 특별사면을 받은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일이다.

◇계속되던 '복귀설'이 사실로 = 지난해 말 이뤄진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의 가장 큰 대외적 명분은 '평창 동계올림픽 유치'였다.

이를 감안해 이 전 회장은 사면 이후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해외에서 전·현직 국제올림픽위원회(IOC) 위원들과 접촉하고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IOC 총회에 참석하는 등 올림픽 유치관련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.

공식행보가 시작된 이후 삼성 주변에서는 이 전 회장의 경영복귀 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단지 '시간이 문제'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.

삼성전자의 개인 대주주로서 지분이 있는데다 사면으로 모든 법적 논란을 털어버리면서 '여론' 외에는 다른 부담요소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.

삼성의 경영진들은 이 전 회장의 복귀문제를 오래 전부터 고민해온 것으로 보인다. 삼성 관계자는 "사장단 협의회가 지난달 17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이 전 회장 경영 복귀를 논의했으며,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 전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. 이러한 의견을 취합해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이 이 전 회장에 전달했다"고 설명했다.

◇이 전 회장, 다시 '위기' 강조 = 삼성의 발표내용을 보면 사장단의 복귀요청을 받은 이 전 회장은 "지금이 진짜 위기"라고 언급하며 복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돼있다.

특별사면후 첫 대외행보였던 지난 1월 미국 멀티미디어 가전쇼 CES에서 일본 경쟁업체들에 대해 "신경은 쓰지만 겁은 안난다", "기초와 디자인에서 우리가 앞섰고 한번 앞선 것은 뒤쫓아 오려면 참 힘들다"며 삼성의 경쟁력에 자신감을 피력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기조다.

이런 상황에서 재등장한 '위기론'은 이 전 회장의 조기 복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.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위기 상황에서 조기 복귀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다는 분석에 다름아니다.

삼성 역시 사장단의 회장직 복귀 요청과 그의 복귀결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요소로 '도요타 사태'를 꼽고 있다.

실제로 이 전회장도 경영복귀를 결정하면서 삼성그룹 공식트위터(@samsungin)를 통해 "글로벌 일류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.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. 다시 시작해야 한다"고 저간의 심경을 피력하기도 했다.

이 전 회장의 공식 복귀와 더불어 삼성식 경영을 상징하는 그룹의 컨트롤타워 '전략기획실'의 실질적 부활 여부와 이학수 현 고문 등 핵심 구성원들의 복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. /연합뉴스

■ 이건희 전 회장 퇴진에서 복귀까지

■ 어떤 역할 할까

후계구도 다지기·위기 돌파위한 비전 제시

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건희 회장의 경영복귀가 24일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그가 사내에서 맡을 역할이 최우선 관심사로 떠올랐다.

◇李-李 후계구도 가속화? = 2008년 4월 이 회장 퇴진선언 당시 함께 삼성전자 최고고객책임자(COO)를 맡고 있다 함께 물러난 이재용 부사장은 이후 해외를 주로 돌며 '경영수업'을 해왔다.

그러다 지난해 말 그룹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전자의 COO를 맡으며 136조원의 매출과 16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삼성전자의 경영 전반을 맡게 됐다.

아직 그룹 외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함 '삼성전자호'의 진정한 선장이 되기위해서는 지분상속이나 등기이사 취임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말 그룹 인사를 기점으로 '이재용 체제'가 완성돼가는 징후는 뚜렷하다.

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쇼 CES에서 기자들로부터 자녀들의 경영역량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"아직 배워야 한다. 아직 어린애"라고 답한 바 있다.

삼성그룹이라는 거함을 이끌기 위해서는 경영수업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.

이병철 창업주의 별세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기는 했지만 이 회장이 그룹 회장직에 오른 것이 그의 나이 45세때다. 이 부사장이 현재 41세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몇년 정도 후계구도 다지기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.

◇사내의사결정 신속화 전망도 = 이 회장은 지난 2년 가까이 공식적으로는 회장직을 떠나있었지만, 여전히 개인으로서는 삼성전자, 삼성생명 등 그룹 핵심계열사의 대주주로서 삼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존재였다. 지난해 10월 발생한 삼성전자 냉장고 폭발사고에 대로했다는 소식이 들린 뒤 관련 임원들이 곧바로 문책을 받은 것이 대표 사례다.

이런 상황에서 비록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'회장'직을 맡게 됨에 따라 사내 구심점으로서 더 강력한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.

특히 삼성이 그의 복귀명분으로 '위기'를 언급한 만큼, 위기 돌파를 위한 장기 비전의 제시와 이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'복귀의 의의'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이런 관측의 배경이 되고 있다. /연합뉴스

24일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지하1층 G플라워 매장에서 황사철을 대비해 공기정화식물을 선보였다. 실내 산소 농도를 높여주는 스파트필름(2만원대), 잡냄새 제거에 효과가 좋은 스킨답서스(8천원대), 음이온을 방출하는 산세베리아(1만원부터) 등 공기정화식물을 다양하게 준비했다. 〈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〉

황사가 반갑다?

마스크 등 관련용품 매출 '쑥쑥'
유통업체 할인판매 등 판촉경쟁

지난 주말 강한 황사가 찾아온 이후 지역 유통가에서는 황사 관련 용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.

광주신세계 이마트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마스크 판매량이 약 270%나 증가했다.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등 가전용품 매출도 전화 문의가 늘면서 판매량이 2.4%가량 소폭 늘었다.

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헤어용품 및 클렌징, 보디용품 등 세정용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약 37% 늘었으며 선글라스 매출도 3% 증가했다.

홈플러스에서도 전주 대비매출이 황사용 마스크는 125%, 공기청정기는 110%, 손 세정제는 94% 늘었다.

유통업계는 황사가 5월 중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황사 관련 상품 매출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판촉전을 벌이고 있다.

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 1층 생활건강코너에서 마스크, 구강청정제, 세정제 등 황사관련 대비 상품을 20~40% 할인된 가격에 판매중이다.

현대백화점 광주점도 지하 1층 식품매장과 1층 화장품 코너에서 '황사상품 모음전'을 진행한다. 클렌징 등 세안용품을 할인판매하고 있다.

신세계 이마트는 이달 말까지 손소독제와 항균 비누 등을 30%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연다.

롯데마트도 손 세정제와 마스크 등을 최대 50%까지 싸게 파는 '황사용품 특별가전'을 전 점포에서 진행중이다.

홈플러스는 '황사용품 모음전'을 열고 황사용 마스크와 각종 항균제품 등을 10~30% 할인판매하고 있다.

/이은미기자 emlee@kwangju.co.kr

봄옷대신 트렌치코트·재킷 인기

쌀쌀한 날씨에 매출 늘어

때늦은 폭설과 추위 때문에 3월 하순에도 원피스 등 봄옷 대신 트렌치코트, 재킷 등 환절기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.

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봄철 인기 아이템이었던 원피스와 블라우스 등 봄옷 매출이 지난해보다 11% 가량 줄었다. 대신 트렌치코트, 카디건, 재킷 같은 환절기 상품 매출은 8%가량 늘었다.

광주신세계백화점도 추운 날씨 탓에 재킷, 트렌치코드 같은 환절기 아이템이 인기를 끌고 있다.

여성의류 브랜드 키이스 매장에서는 트렌치코트 매출이 지난해보다 29.5%나 증가했다.

타미힐 피거, 띠어리 등의 여성의류 브랜드에서도 방문 고객의 50%가 재킷을 구입하고 있다.

광주신세계백화점 여성의류 관계자는 "원피스는 여성의류 매장에서 상품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은 봄옷"이라며 "예전에는 원피스만 구입했다면 올해는 추운 날씨 탓에 손님 10명중 8~9명은 원피스와 재킷을 함께 구입하는 추세"라고 말했다.

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"당초 3월 의류매장을 원피스, 블라우스 등 봄철 인기 아이템을 집중 배치할 생각이었지만 이상기온으로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트렌치코트, 재킷 등 간절기 상품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"고 말했다. /이은미기자 emlee@

중소상인 살리기 유통법 개정촉구

광주네트워크 기자회견

'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'(위원장 김용재·이하 광주네트워크)가 25일 오후 2시 시청 앞 미관광장 맞은 편에서 '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' 기자회견을 연다.

광주네트워크 김용재 집행위원장은 "기업형 슈퍼마켓(SSM)에 대한 허가제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또 다시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"며 "이에 25일을 전국상인단체들의 '공동행동의 날'로 잡고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정부와 집권 여당에 전하고자 기자회견을 준비했다"고 말했다. /이은미기자 emlee@